

연구보고 17-R15-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책임연구원 김진석

RESEARCH REPORT 2017

NYPI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책임연구원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이들의 인권의식과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은 아동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정보접근성에 대한 개념화, 정보접근성과 아동의 인권의식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아동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아동의 인권의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아동의 인권의식에 대한 접근에 있어 기존의 인식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식에 기반한 행동에까지 확장하고자 시도한 점은 이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권의식 관련 변수를 아동의 인권관련 전반적 인식,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인권효능감 등의 변수뿐만 아니라 이 같은 변수들로 측정되는 아동의 인권의식이 행동으로 외현화되어 나타나는 결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부정적 행동으로서의 차별 가해 경험들까지도 포함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변수로는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 인권관련 제도나 기관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 상관계수 분석 등을 이용한 선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인권관련 의식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권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주요한 인구사회적인 변수를 통제한 후에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기관 인지도, 인권교육 도움정도는 이들의 인권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의 인권존중 정도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에도 아동의 인권정보 접근성, 인권기관 인지도, 인권교육 도움정도는 여전히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인권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에도 아동의 인권정보 접근성, 인권기관 인지도, 인권교육 도움정도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연관된

어 나타나는 사회활동 참여정도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도 아동의 인권정보 접근성, 인권기관 인지도, 인권교육 도움정도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된 부정적 행동결과라 할 수 있는 차별가해 경험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 아동의 인권정보 접근성, 인권교육 도움정도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나 인권기관 인지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이 이들의 인권관련 의식 및 행동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함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변수들 가운데 인권교육 도움정도가 유의미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인권교육의 질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 관련 변수들이 이들의 인권의식에 있어서 의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행동적 차원에도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201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인권의식, 인권행동, 정보접근성, 인권기관 인지도, 인권교육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이들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 인권의식 관련 변수로 인권존중 정도, 인권의식, 인권효능감 등의 인식적 차원의 변수뿐만 아니라 사회참여활동, 차별가해경험 등 인권의식을 반영한 행동적 차원의 변수도 포함하였다.
- 정보접근성 관련 변수로는 인권관련 정보 제공받은 정도, 인권기관 인지도, 그리고 인권교육 도움 정도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 정보접근성 관련 변수들 가운데 인권관련 정보와 인권교육 도움정도 변수는 인권존중정도, 인권의식, 인권효능감 등의 인식적 차원의 인권의식 변수뿐 아니라 사회참여활동, 차별가해경험 등 행동적 차원의 변수들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 인권기관 인지도의 경우는 사회참여활동을 제외한 모든 인권의식 및 행동 관련 변수들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4. 정책제언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관련 변수와 인권정보 접근성 관련 변수들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발달에 있어 인권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아동과 청소년이 받은 인권관련 교육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가 이들의 인권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도움정도는 인권 교육의 질과 관련있는 변수로서 향후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양적인 부분과 더불어 질적인 부분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향후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인권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1
II. 연구내용과 방법	7
1. 자료 및 연구대상	9
2. 변수	10
1) 인권의식	12
2) 정보접근성	14
3) 배경변수	15
3. 분석방법	15
III. 연구결과	17
1. 연구 참가자 특성	19
2. 인권의식 관련 주요변수의 분포	21
1) 인권의식	22
2) 인권 존중 정도	23
3) 인권효능감	24
4) 사회참여 경험	25
5) 차별가해경험	26
6) 인권정보 제공	27
7)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도	28
8) 인권교육 도움정도	29
3. 인권관련 변수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 정보접근성을 중심으로	30
1) 인권의식	30
2) 인권존중 정도	32
3) 인권효능감	34

4) 참여경험 정도	35
5) 차별가해 경험	37
IV. 논의 및 결론	39
참고문헌	47

표 목 차

〈표 II-2-1〉 변수의 정의와 설문내용	10
〈표 III-1-1〉 연구 참가자 특성	19
〈표 III-2-1〉 인권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21
〈표 III-2-2〉 인권의식 분포	22
〈표 III-2-3〉 인권 존중 정도 분포	23
〈표 III-2-4〉 인권효능감 분포	24
〈표 III-2-5〉 참여활동 분포	25
〈표 III-2-6〉 차별가해 경험 분포	26
〈표 III-2-7〉 인권정보 제공 분포	27
〈표 III-2-8〉 인권기관 인지도 분포	28
〈표 III-2-9〉 인권교육 도움정도 분포	29
〈표 III-3-1〉 인권의식 분석 모형	31
〈표 III-3-2〉 인권존중 정도 분석 모형	33
〈표 III-3-3〉 인권효능감 분석 모형	35
〈표 III-3-4〉 참여정도 분석 모형	36
〈표 III-3-5〉 차별가해 경험 분석 모형	38

제 I 장



연구의 필요성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인권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당연히 부여된 권리이지만, 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상호 존중 없이는 권리주체자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또 타인의 권리를 옹호하기도 어렵다. 즉,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의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기 어렵다. 인권의식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하는 태도(김자영, 2011)로, 공동체 안에서의 시민참여와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정상우, 2013).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타인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인권에 대한 의식이 더욱 발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개념 형성 및 인권의식 발달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찾기 어렵다(박상준, 임태승, 2010)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발달 및 의식 개선을 위해 그동안 학교 및 청소년분야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유엔은 “지식의 공유, 기술의 보급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한 인권의 보편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교육, 훈련, 정보전달”로 인권 교육을 정의내리고 있다(UN, 2005, 양천수 외, 2011: 90에서 재인용). 또한 유엔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는 인권교육을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행동양식을 육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OHCHR, UNESCO, 2006, 양천수 외, 2011: 90에서 재인용).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대해서 문영희(2010: 74)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권의 관점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갖도록 돕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상우(2013: 152)는 인권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원적 사회에서 민주적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고, 청소년들에게 비폭력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국 자아인식과 가치관 형성 등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적절한 인권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인권적 관점에서 사회각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이슈 등에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숙한 시민이자 사회구성원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민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의식을 갖고 여러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박상준, 임태승, 2010). 이러한 맥락에서 효과적인 인권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인권교육이 대부분 특강과 같은 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으나(정해숙, 박성정, 구정화, 최윤정, 2011), 기본적인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 및 지식 전달은 특히, 기초적인 인권교육 단계에서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즉, 인권과 관련한 정책, 관련 기관 등(아동권리협약관련 아동·청소년용 정책홍보자료,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정보나 지식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의 양과 그 내용은 이들이 인권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준거로 작용한다.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이들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 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인권의 범위와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형성해가고 있는 인권의식을 그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상당부분 규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인권의식 형성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인권관련 정보의 양과 내용, 그리고 그에 앞서 다양한 인권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이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의식 형성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관련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 이들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접근 권한의 문제는 학문적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은 아동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정보접근성에 대한 개념화, 정보접근성과 아동의 인권의식에 대한 실증연구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고찰이 수행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의 일환으로 실시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대한 접근에 있어 기존 인식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식에 기반한 행동에까지 확장하고자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관련 변수를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전반적 인식,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끼는 정도, 인권효능감 등의 변수와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행동으로 외현화되어 나타나는 형태로써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그리고 부정적 행동으로서의 차별 가해 경험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변수로는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관련 제도나 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 등을 활용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정보접근성에 대한 연구는 기존 문헌 분석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기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특정한 이론적 틀에 근거한 가설을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보다, 앞서 소개한 다양한 인권의식 관련 변수와 정보접근성 관련 변수를 활용하여 탐색적인 방식으로 분석모형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II 장

연구내용과 방법

1. 자료 및 연구대상
2. 변수
3. 분석방법

제 II 장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활용한 2차 자료분석 연구이다. 아래에 본 연구에 활용한 자료, 연구대상, 변수, 분석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1. 자료 및 연구대상

본 2차 자료 분석연구는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매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 향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에 걸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구분과 학교급 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방식으로 표집을 수행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총 9,008명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분석에 활용하는 변수에 따라 초등학생에게 묻지 않은 질문들이 있다. 본 2차 자료 분석연구에 활용되는 주요변수 가운데 초등학생에게 묻지 않은 질문(예: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본 분석에는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등학생만을 포함하였다(N=6,350).

2. 변수

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이 연구에는 크게 아동 인권의식 관련 변수, 아동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변수, 그리고 응답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활용되었다. 이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과 설문내용들을 아래 <표 II-2-1>에 정리하였다.

표 II-2-1 변수의 정의와 설문내용

측정변수	설문내용	응답범주	α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	문45.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가정 (2) 학교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4) 우리나라 전체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전혀 존중 받지 못한다 ~ ④ 매우 존중 받는다	.822
인권의식	문46.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766
인권 효능감	문10.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771

측정변수	설문내용	응답범주	α
	롭게 표현할 수 있다 (3)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차별피해 경험	문48.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한 번도 없음 ~ ⑤ 1주일에 1-2회 이상	.731
차별가해 경험	문49. 최근 1년 동안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8)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한 번도 없음 ~ ⑤ 1주일에 1-2회 이상	.820
참여활동	문12.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전혀 없다 ~ ④ 자주 있다	.698

측정변수	설문내용	응답범주	α
인권 정보 제공 정도	문14. 다음은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2)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3)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아니다 ② 그렇다	.725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도	문44.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2) 학생인권조례 (3) 국가인권위원회	① 모른다 ② 이름만 들어봤다 ③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755
인권교육 도움정도	문47-2 그 (인권)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매우 도움이 된다	NA

1) 인권의식

응답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인권존중 정도, 인권의식, 인권효능감,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 경험과 같은 다음 네 개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1) 인권 존중 정도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 등 본인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에서 “매우 존중받는다” 등으로 구성된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사이버 공간 등 5개 영역에 걸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alpha=.822$ 이었다.

(2) 인권의식

다양한 인권 관련 상황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묻는 총 7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등의 문장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인권의식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alpha=.766$ 이었다.

(3) 인권효능감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 사회, 가정 등 주요한 생활공간에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권효능감 질문은 세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의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alpha=.771$ 이었다.

(4) 사회참여활동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관련 의식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라 할 수 있는 사회참여활동 변수는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동호회나 인터넷 카페, 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없다(=1)”부터 “자주 있다(=4)”까지의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alpha=.698$ 이었다.

(5) 차별 가해 경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관련 의식이 부재하거나 왜곡된 경우 이러한 의식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발현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차별 가해 경험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성별, 공부, 나이, 가정 형편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타인을 차별한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한 번도

없음(=1)”부터 “1주일에 1-2회 이상(=5)”까지의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alpha=.820$ 이었다.

2) 정보접근성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경험, 인권관련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1) 인권관련 정보 제공

청소년 인권관련 정책이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자료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 혹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상담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총 3개의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니다(=1)”와 “그렇다(=2)”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alpha=.725$ 이었다.

(2) 인권관련 기관 및 제도 인지 정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일반과 관련하여 인권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각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른다(=1)”에서부터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3)” 등의 3개의 범주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alpha=.755$ 이었다.

(3) 인권교육 도움 정도

정보접근성과 관련 있는 변수로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는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를 물어보고 1번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응답자에게 교육의 도움정도를 물어보았다.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4)”까지의 척도를 활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연구에 포함하였다.

3) 배경변수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배경 변수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 나이, 학교급, 응답아동 거주 지역의 규모,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변수 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학교급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거주지역의 규모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구분하였다. 학업성적 변수는 스스로 생각하는 성적수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매우 못하는 수준(=1)”에서 “매우 잘하는 수준(=5)”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경제적 수준 변수도 스스로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매우 못산다(=1)”부터 “매우 잘산다(=7)”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3. 분석방법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관련 변수들과 인권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기술 분석과 추론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과 같은 기술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주요 인권 관련 변수들이 배경변수로 측정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주요한 특성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즉 분포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관계수 분석과 같은 이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관련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권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변수들, 그리고 다양한 주요 배경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모형화하기 위해 상관관계수 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정리와 분석을 위해서는 Stata MP 15(Stata Corp, 2017)을 활용하였다.

제 III 장

연구결과

1. 연구 참가자 특성
2. 인권의식 관련 주요변수의 분포
3. 인권관련 변수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 정보접근성을 중심으로

제 III 장

연구결과

1. 연구 참가자 특성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III-1-1>과 같다. 본 분석에 포함된 총 6,350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남학생이 3,377명으로 전체의 53.2%, 여학생이 2,973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중학생이 2,770명 (43.6%), 고등학생이 3,580명 (56.4%)이었으며, 고등학생은 자율고 학생 454명(7.2%), 특성화고 학생 592명(9.32%), 그리고 특목고 학생 144명(2.3%)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 아동과 청소년이 2,582명(40.7%), 중소도시가 2,825명 (44.5%), 그리고 나머지가 각각 읍지역(722명, 11.4%), 면지역(198명, 3.1%), 도서벽지(23명, 0.4%)로 분포되어 있었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45%이상이, 어머니의 경우 39%정도가 4년제 대학졸업이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아버지의 95%이상이, 어머니의 71%가 노동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가 응답한 학교성적수준과 가정의 경제적수준은 각각 중간 값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 연구참가자 특성

변수	구분	n	%
학교급 (N=6,350)	중학교	2,770	43.6
	고등학교	3,580	56.4
학교급 (N=6,350)	중학교	2,770	43.6
	일반고	2,390	37.6
	자율고	454	7.2
	특성화고	592	9.3
	특목고	144	2.3

변수	구분	n	%
지역구분 (N=6,350)	특별/광역시	2,582	40.7
	중소도시	2,825	44.5
	읍지역	722	11.4
	면지역	198	3.1
	도서벽지	23	0.4
성별 (N=6,350)	남학생	3,377	53.2
	여학생	2,973	46.8
아버지 학력 (N=6,341)	부모님 안 계심	104	1.6
	학교 안다님	5	0.1
	초등학교 졸업	39	0.6
	중학교 졸업	99	1.6
	고등학교 졸업	1,499	23.6
	2-3년제 대학 졸업	440	6.9
	4년제 대학 졸업	2,339	36.9
	대학원졸업 (석사 · 박사)	557	8.8
	잘 모르겠음	1,259	19.9
어머니 학력 (N=6,333)	부모님 안 계심	84	1.3
	학교 안다님	3	0.1
	초등학교 졸업	20	0.3
	중학교 졸업	70	1.1
	고등학교 졸업	1,857	29.3
	2-3년제 대학 졸업	505	8.0
	4년제 대학 졸업	2,184	34.5
	대학원졸업 (석사 · 박사)	312	4.9
	잘 모르겠음	1,298	20.5
아버지 직업 (N=6,334)	부모님 안 계심	169	2.7
	있음	6,061	95.5
	없음	114	1.8
어머니 직업 (N=6,340)	부모님 안 계심	134	2.1
	있음	4,506	71.1
	없음	1,700	26.8
학교성적 수준 (N=6,347)	① 매우 못하는 수준	472	7.4
	② 못하는 수준	1,443	22.7
	③ 중간	2,668	42.0
	④ 잘하는 수준	1,271	20.0
	⑤ 매우 잘하는 수준	493	7.8

변수	구분	n	%
경제적 가정형편 (N=6,347)	① 매우 못 산다	30	0.5
	② -	113	1.8
	③ -	666	10.5
	④ 보통 수준	2,406	37.9
	⑤ -	2,140	33.7
	⑥ -	733	11.6
	⑦ 매우 잘 산다	259	4.1

2. 인권의식 관련 주요변수의 분포

인권관련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정리하면 <표 III-2-1>과 같다. 인권의식 변수는 참여활동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 대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표 III-2-1>의 다른 모든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인권효능감 변수는 차별가해경험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참여활동과 차별가해경험 변수들은 앞서 언급한 두 개의 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III-2-1 인권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인권의식									
2. 인권존중정도	.247***								
3. 인권효능감	.252***	.406***							
4. 참여활동	.085	-.036**	.028*						
5. 차별가해경험	-.102***	-.185***	-.084	.067***					
6. 인권관련 정보제공	.027*	.084***	.081***	.155***	.035**				
7. 인권기관인지도	.181***	.123***	.121***	.194***	-.009	.249***			
8. 인권교육 도움정도	.150***	.144***	.102***	.110***	-.028*	.176***	.243***		
9. 학교성적	.126***	.148***	.111***	.057***	.015	.070***	.121***	.076***	
10. 가정의 경제적 상태	.029*	.203***	.121***	.025*	-.049***	.024	.076***	.012	.224***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의식 관련 주요 변수의 분포를 다른 배경변수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1) 인권의식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남자($M=3.26$, $SD=0.48$)에 비해 여자($M=3.42$, $SD=0.39$)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15.09$, $p<.001$), 중학생($M=3.33$, $SD=0.45$)과 고등학생($M=3.34$, $SD=0.45$) 사이에는 의미 있는 편차가 없었다($t=1.01$, $p=.31$). 응답자의 부모님이 대학졸업인 경우(어머니 $M=3.38$, $SD=0.43$; 아버지 $M=3.37$, $SD=0.44$) 그렇지 않은 경우(어머니 $M=3.31$, $SD=0.46$; 아버지 $M=3.31$, $SD=0.46$)에 비해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났다(어머니 $t=5.89$, $p<.001$; 아버지 $t=5.68$, $p<.001$). 지역규모별로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 6342)=4.85$, $p=.008$), 읍면도서($M=3.30$, $SD=0.46$)의 아동과 청소년이 대도시($M=3.35$, $SD=0.45$)나 중소도시($M=3.34$, $SD=0.44$)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보여주었다.

표 III-2-2 인권의식 분포

	인권의식			
	n	Mean	SD	t, F
성별				15.09
남자	3,375	3.26	0.48	
여자	2,970	3.42	0.39	
학교급				1.01
중학교	2,767	3.33	0.45	
고등학교	3,578	3.34	0.45	
어머니 교육수준				5.89
대학졸업 아님	3,850	3.31	0.46	
대학졸업	2,495	3.38	0.43	
아버지 교육수준				5.68
대학졸업 아님	3,451	3.31	0.46	
대학졸업	2,894	3.37	0.44	
지역규모				7.48
대도시	2,582	3.35	0.45	
중소도시	2,823	3.34	0.44	
읍면도서	940	3.30	0.46	

2) 인권 존중 정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 정도에 대한 인식은 남자($M=3.13$, $SD=0.55$)에 비해 여자($M=3.05$, $SD=0.46$)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27$, $p<.001$), 중학생($M=3.15$, $SD=0.53$)과 고등학생($M=3.05$, $SD=0.49$) 사이에도 편차가 발견되었다($t=7.41$, $p<.001$). 아동의 부모님이 대학졸업인 경우(어머니 $M=3.12$, $SD=0.52$; 아버지 $M=3.13$, $SD=0.51$) 그렇지 않은 경우(어머니 $M=3.08$, $SD=0.50$; 아버지 $M=3.07$, $SD=0.51$)에 비해 인권 존중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 $t=3.29$, $p=.001$; 아버지 $t=4.60$, $p<.001$). 지역규모별로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 6341)=3.29$, $p=.037$), 읍면도서($M=3.06$, $SD=0.51$)의 아동과 청소년이 대도시($M=3.11$, $SD=0.52$)보다 인권 존중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소도시($M=3.09$, $SD=0.50$)와는 의미 있는 편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2-3 인권 존중 정도 분포

	인권존중받는 정도			
	n	Mean	SD	t, F
성별				3.27
남자	3,374	3.13	0.55	
여자	2,970	3.05	0.46	
학교급				7.406
중학교	2,767	3.15	0.53	
고등학교	3,577	3.05	0.49	
어머니 교육수준				3.29
대학졸업 아님	3,849	3.08	0.5	
대학졸업	2,495	3.12	0.52	
아버지 교육수준				4.60
대학졸업 아님	3,450	3.07	0.51	
대학졸업	2,894	3.13	0.51	
지역규모				3.29
대도시	2,582	3.11	0.52	
중소도시	2,822	3.09	0.5	
읍면도서	940	3.06	0.51	

3) 인권효능감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 사회, 가정 등 주요한 생활공간에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권효능감은 남자($M=3.17$, $SD=0.63$)와 여자($M=3.14$, $SD=0.59$)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t=1.91$, $p=.057$), 고등학생($M=3.19$, $SD=0.58$)과 중학생($M=3.11$, $SD=0.64$) 사이에는 유의한 편차가 발견되었다($t=6.22$, $p<.001$). 아동의 부모님이 대학졸업인 경우(어머니 $M=3.20$, $SD=0.61$; 아버지 $M=3.21$, $SD=0.61$) 그렇지 않은 경우(어머니 $M=3.12$, $SD=0.61$; 아버지 $M=3.11$, $SD=0.61$)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 $t=5.22$, $p<.001$; 아버지 $t=6.22$, $p<.001$). 아동과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규모별 편차는 드러나지 않았다($F(2, 6339)=0.76$, $p=.467$).

표 III-2-4 인권효능감 분포

	인권효능감			
	n	Mean	SD	t, F
성별				1.91
남자	3,372	3.17	0.63	
여자	2,970	3.14	0.59	
학교급				4.75
중학교	2,766	3.11	0.64	
고등학교	3,576	3.19	0.58	
어머니 교육수준				5.22
대학졸업 아님	3,849	3.12	0.61	
대학졸업	2,493	3.20	0.61	
아버지 교육수준				6.22
대학졸업 아님	3,451	3.11	0.61	
대학졸업	2,891	3.21	0.61	
지역규모				0.76
대도시	2,582	3.16	0.61	
중소도시	2,818	3.14	0.61	
읍면도서	942	3.16	0.61	

4) 사회참여 경험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여자(M=1.71, SD=0.73)가 남자(M=1.63, SD=0.71)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4.23$, $p<.001$), 중학생(M=1.68, SD=0.72)과 고등학생(M=1.66, SD=0.72) 사이에는 의미 있는 편차가 발견되지 않았다($t=0.93$, $p=.351$). 부모님이 대학졸업인 경우(어머니 M=1.72, SD=0.74; 아버지 M=1.72, SD=0.74) 그렇지 않은 경우(어머니 M=1.63, SD=0.70; 아버지 M=1.63, SD=0.71)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참여 경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 $t=4.77$, $p<.001$; 아버지 $t=4.70$, $p<.001$). 아동과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규모별 사회참여 편차는 드러나지 않았다($F(2, 6327)=0.15$, $p=.467$).

표 III-2-5 참여활동 분포

	참여활동			
	n	Mean	SD	t, F
성별				4.23
남자	3,366	1.63	0.71	
여자	2,964	1.71	0.73	
학교급				0.93
중학교	2,761	1.68	0.72	
고등학교	3,569	1.66	0.72	
어머니 교육수준				4.77
대학졸업 아님	3,842	1.63	0.70	
대학졸업	2,488	1.72	0.74	
아버지 교육수준				4.70
대학졸업 아님	3,441	1.63	0.71	
대학졸업	2,889	1.71	0.74	
지역규모				0.15
대도시	2,574	1.67	0.73	
중소도시	2,820	1.67	0.72	
읍면도서	936	1.66	0.70	

5) 차별가해경험

인권意識과 관련한 부정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차별가해경험의 정도는 여자(M=1.10, SD=0.22)가 남자(M=1.12, SD=0.34)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24$, $p=.001$), 중학생(M=1.10, SD=0.27)과 고등학생(M=1.11, SD=0.30) 사이에는 의미 있는 편차가 발견되지 않았다($t=1.30$, $p=.194$). 아동의 어머니가 대학졸업인 경우(M=1.12 SD=0.31) 그렇지 않은 경우(M=1.10, SD=0.27)에 비해 차별가해 경험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2.70$, $p=.007$). 하지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차별가해 경험의 수준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0.96$, $p=.335$).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차별 가해 경험 정도는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규모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 6342)=3.60$, $p=.028$), 읍면도서(M=1.13, SD=0.35)의 아동과 청소년이 대도시(M=1.10, SD=0.28)나 중소도시(M=1.10, SD=0.27)에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차별가해경험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차별가해 경험 분포

	차별가해경험			
	n	Mean	SD	t, F
성별				3.24
남자	3,374	1.12	0.34	
여자	2,971	1.10	0.22	
학교급				1.30
중학교	2,767	1.10	0.27	
고등학교	3,578	1.11	0.3	
어머니 교육수준				2.70
대학졸업 아님	3,850	1.10	0.27	
대학졸업	2,495	1.12	0.31	
아버지 교육수준				0.96
대학졸업 아님	3,451	1.10	0.28	
대학졸업	2,894	1.11	0.3	
지역규모				3.60
대도시	2,581	1.10	0.28	
중소도시	2,822	1.10	0.27	
읍면도서	942	1.13	0.35	

6) 인권정보 제공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는 여자($M=1.19$, $SD=0.31$)가 남자($M=1.21$, $SD=0.33$)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92$, $p=.004$), 중학생($M=1.21$, $SD=0.33$)과 고등학생($M=1.19$, $SD=0.31$) 사이에도 편차가 발견되었다($t=2.08$, $p=.038$). 아동의 부모님이 대학졸업인 경우(어머니 $M=1.22$, $SD=0.32$; 아버지 $M=1.22$, $SD=0.33$) 그렇지 않은 경우(어머니 $M=1.19$, $SD=0.31$; 아버지 $M=1.19$, $SD=0.31$)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 $t=4.37$, $p<.001$; 아버지 $t=3.16$, $p=.002$).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는 정도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규모별로 편차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2, 6337)=1.57$, $p=.209$).

표 III-2-7 인권정보 제공 분포

	인권정보 제공			
	n	Mean	SD	t, F
성별				2.92
남자	3,370	1.21	0.33	
여자	2,970	1.19	0.31	
학교급				2.08
중학교	2,763	1.21	0.33	
고등학교	3,577	1.19	0.31	
어머니 교육수준				4.37
대학졸업 아님	3,847	1.19	0.31	
대학졸업	2,493	1.22	0.33	
아버지 교육수준				3.16
대학졸업 아님	3,447	1.19	0.31	
대학졸업	2,893	1.22	0.32	
지역규모				1.57
대도시	2,579	1.20	0.32	
중소도시	2,819	1.21	0.32	
읍면도서	942	1.19	0.31	

7)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도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관련 기관이나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여자($M=1.73$, $SD=0.51$)가 남자($M=1.68$, $SD=0.55$)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89$, $p<.001$), 고등학생($M=1.73$, $SD=0.54$)과 중학생($M=1.67$, $SD=0.52$) 사이에도 의미 있는 편차가 발견되었다($t=4.77$, $p<.001$). 아동의 부모님이 대학졸업인 경우(어머니 $M=1.78$, $SD=0.55$; 아버지 $M=1.77$, $SD=0.54$) 그렇지 않은 경우(어머니 $M=1.66$, $SD=0.51$; 아버지 $M=1.65$, $SD=0.51$)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관련 기관이나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 $t=8.72$, $p<.001$; 아버지 $t=8.69$, $p<.001$). 아동과 청소년 인권관련 기관이나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규모별로 편차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2, 6341)=2.19$, $p=.112$).

표 III-2-8 인권기관 인지도 분포

	인권기관인지도			
	n	Mean	SD	t, F
성별				3.89
남자	3,375	1.68	0.55	
여자	2,969	1.73	0.51	
학교급				4.77
중학교	2,767	1.67	0.52	
고등학교	3,577	1.73	0.54	
어머니 교육수준				8.72
대학졸업 아님	3,849	1.66	0.51	
대학졸업	2,495	1.78	0.55	
아버지 교육수준				8.69
대학졸업 아님	3,451	1.65	0.51	
대학졸업	2,893	1.77	0.54	
지역규모				2.19
대도시	2,581	1.70	0.53	
중소도시	2,823	1.72	0.54	
읍면도서	940	1.69	0.51	

8) 인권교육 도움정도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는 여자(M=1.85, SD=1.34)가 남자(M=1.61, SD=1.43)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6.70$, $p<.001$), 중학생(M=1.87, SD=1.39)과 고등학생(M=1.61, SD=1.39) 사이에도 의미 있는 편차가 발견되었다($t=7.43$, $p<.001$). 아동의 부모님이 대학졸업인 경우(어머니 M=1.83, SD=1.35; 아버지 M=1.79, SD=1.35) 그렇지 않은 경우(어머니 M=1.65, SD=1.42; 아버지 M=1.66, SD=1.42)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는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 $t=4.81$, $p<.001$; 아버지 $t=3.66$, $p<.001$). 아동과 청소년에게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는 정도는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규모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 6171)=24.65$, $p<.001$) 읍면도서(M=1.42, SD=1.41)의 아동과 청소년이 대도시(M=1.77, SD=1.40)나 중소도시(M=1.77, SD=1.37)에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도움되는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인권교육 도움정도 분포

	인권교육 도움정도			
	n	Mean	SD	t, F
성별				6.70
남자	3,275	1.61	1.43	
여자	2,899	1.85	1.34	
학교급				7.43
중학교	2,688	1.87	1.39	
고등학교	3,486	1.61	1.39	
어머니 교육수준				4.81
대학졸업 아님	3,756	1.65	1.42	
대학졸업	2,418	1.83	1.35	
아버지 교육수준				3.66
대학졸업 아님	3,368	1.66	1.42	
대학졸업	2,806	1.79	1.35	
지역규모				24.65
대도시	2,526	1.77	1.4	
중소도시	2,741	1.78	1.37	
읍면도서	907	1.42	1.41	

3. 인권관련 변수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 정보접근성을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변수를 측정하는 변수로 인권의식,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정도, 인권효능감, 사회참여 경험, 그리고 차별가해 경험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인권 관련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 인권기관에 대한 인지도,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를 고려하였으며, 차별피해경험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아래의 통계표들에서 모형1은 배경변수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인들만을 포함한 기저모형이며, 여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 나이, 학교급,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풍요도, 부모 각각의 대학졸업 여부를 통한 교육수준, 거주지역의 규모 등이 포함되었다. 모형 2는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인 인권정보 제공받은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접근성, 인권 관련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와 통제변수로서 차별피해경험 변수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3은 모형1과 모형2의 통합모형으로 인구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통제한 후에 인권정보 접근성 관련 변수를 포함한 최종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관련 변수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해 표준회귀계수 값(β)을 같이 제시하였다.

1) 인권의식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아래 <표 III-3-1>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과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사이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R\text{-squared}=0.06$, $F(9, 6149)=42.01$, $p<.001$).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의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B(S.E)=0.17(0.01)$, $p<.001$), 나이가 어릴수록 ($B(S.E)=-0.01(0.01)$, $p<.05$), 고등학생에게 비해 중학생이 ($B(S.E)=-0.06(0.02)$, $p<.01$), 학교성적이 우수할수록($B(S.E)=0.06(0.01)$, $p<.001$), 어머니가 대학졸업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B(S.E)=0.03(0.01)$, $p<.05$), 그리고 읍면도시에 사는 경우 대도시에서 사는 경우에 비해($B(S.E)=-0.03(0.02)$, $p<.05$) 해당 아동의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인권정보 접근성 관련 변수만을 포함하였고 분석결과는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0.05$, $F(4, 6154)=73.53$, $p<.001$). 구체적으로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낮을수록($B(S.E)=-0.05(0.02)$, $p<.01$), 인권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B(S.E)=0.13(0.01)$, $p<.001$), 그리고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B(S.E.)=0.04(0.00)$, $p<.001$)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 모형 1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인권정보 접근성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인권의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text{-squared}=0.09$, $F(13, 6145)=46.49$, $p<.001$). 인구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낮을수록($B(S.E.)=-0.04(0.02)$, $p<.05$), 인권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B(S.E.)=0.11(0.01)$, $p<.001$), 그리고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B(S.E.)=0.03(0.00)$, $p<.001$)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낮을수록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난 점은 이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다른 결과이다. 추가적인 분석에 의하면 인권정보제공의 부적 상관관계는 인권기관 인지도와 인권교육 도움정도가 분석모형 포함되었을 때에는 유의미했으나, 위에 언급한 두 개의 변수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권기관 인지도와 인권교육 도움정도가 청소년 인권의식과 인권정보제공 사이의 관계를 억압 (suppression effect)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모형 3은 모형 1에 비교했을 때에도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text{-squared change}=0.03$, $F(4, 6145)=53.36$, $p<.001$). 표준화회귀계수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인권관련 정보접근성 변수들 가운데는 인권기관 인지도($\beta=0.13$)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인권의식 분석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B)	β	B	S.E.(B)	β	B	S.E.(B)	β
성별 ^a									
여성	0.17 ***	0.01	0.19				0.15 ***	0.01	0.17
나이	-0.01 *	0.01	-0.05				0.00	0.01	-0.01
학교급 ^b									
고등학교	-0.06 **	0.02	-0.07				-0.03	0.02	-0.03
학교성적	0.06 ***	0.01	0.13				0.05 ***	0.01	0.11
경제적 풍요도	0.00	0.01	0.00				0.00	0.01	0.00
모교육수준 ^c									
대학졸업	0.03 *	0.01	0.03				0.02	0.01	0.02
부교육수준 ^c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B)	β	B	S.E.(B)	β	B	S.E.(B)	β
대학졸업	0.02	0.01	0.02				0.01	0.01	0.01
지역규모 ^d									
중소도시	0.00	0.01	-0.01				-0.01	0.01	-0.01
읍면도시	-0.03 *	0.02	-0.03				-0.03	0.02	-0.02
인권정보 접근성				-0.05 **	0.02	-0.03	-0.04 *	0.02	-0.03
인권기관 인지도				0.13 ***	0.01	0.16	0.11 ***	0.01	0.13
인권교육 도움정도				0.04 ***	0.00	0.12	0.03 ***	0.00	0.10
R ²	0.058			0.05			0.09		
F(df1, df2)	42.01 (9, 6149)***			73.53(4, 6154)***			46.49(13, 6145)***		

* p<.05 ** p<.01 *** p<.001; 이 표에 제시된 변수들 외에 차별피해경험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주: a 비교집단: 남자; b 비교집단: 중학교 c 비교집단: 대학졸업 아님; d 비교집단: 대도시

2) 인권존중 정도

아동과 청소년의 스스로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아래 <표 III-3-2>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 인구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과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사이의 관계가 확인되었다(R-squared=.06, F(9, 6148)=46.72, p<.001).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의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B(S.E.)=-0.06(0.01), p<.001), 나이가 어릴수록 (B(S.E.)=-0.06(0.01), p<.05),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B(S.E.)=-0.11(0.03), p<.001), 학교성적이 우수할수록(B(S.E.)=0.05(0.01), p<.001),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요할수록(B(S.E.)=0.07(0.01), p<.001), 그리고 아버지가 대학졸업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B(S.E.)=0.03(0.02), p<.05) 해당 아동이 스스로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인권정보 접근성 관련 변수만을 포함하였고 분석결과는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squared=0.11, F(4, 6153)=192.65, p<.001). 구체적으로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높을수록(B(S.E.)=0.05(0.02), p<.01), 인권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B(S.E.)=0.09(0.01), p<.001), 그리고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B(S.E.)=0.05(0.00), p<.001) 아동과 청소년은 스스로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 모형 1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인권정보 접근성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존중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0.15$, $F(13, 6144)=82.26$, $p<.001$). 인구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높을수록($B(S.E)=0.04(0.02)$, $p<.05$), 인권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B(S.E)=0.07(0.01)$, $p<.001$), 그리고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B(S.E)=0.04(0.00)$, $p<.001$)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1에 비교했을 때에도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 \text{ change}= 0.08$, $F(4, 6144)=151.88$, $p<.001$). 표준화회귀계수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인권관련 정보접근성 변수들 가운데는 인권 교육의 도움정도($\beta=0.11$)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사회경제적 변수까지 포함하는 경우 가정의 경제적 풍요도($\beta=0.13$)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드러났다.

표 III-3-2 인권존중 정도 분석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B)	β	B	S.E.(B)	β	B	S.E.(B)	β
성별 ^a									
여성	-0.06 ***	0.01	-0.06				-0.03 ***	0.01	-0.03
나이	-0.06 *	0.01	-0.19				-0.04	0.01	-0.13
학교급 ^b									
고등학교	-0.11 **	0.03	-0.11				-0.07	0.03	-0.07
학교성적	0.05 ***	0.01	0.10				0.04 ***	0.01	0.07
경제적 풍요도	0.07	0.01	0.15				0.06	0.01	0.13
모교육수준 ^c									
대학졸업	-0.03 *	0.02	-0.03				-0.03	0.02	-0.02
부교육수준 ^c									
대학졸업	0.03	0.02	0.03				0.03	0.02	0.03
지역규모 ^d									
중소도시	-0.02	0.01	-0.02				-0.02	0.01	-0.02
읍면도시	-0.02 *	0.02	-0.01				-0.01	0.02	-0.01
인권정보 접근성				0.05 **	0.02	0.03	0.04 *	0.02	0.02
인권기관 인지도				0.09 ***	0.01	0.09	0.07 ***	0.01	0.08
인권교육 도움정도				0.05 ***	0.00	0.12	0.04 ***	0.00	0.11
R^2	0.06			0.11			0.15		
$F(df1, df2)$	46.72 (9, 6148) ***			192.65(4, 6153) ***			82.26(13, 6144) ***		

* $p<.05$ ** $p<.01$ *** $p<.001$; 이 표에 제시된 변수들 외에 차별피해경험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주: a 비교집단: 남자; b 비교집단: 중학교 c 비교집단: 대학졸업 아님; d 비교집단: 대도시

3) 인권효능감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인 인권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아래 <표 III-3-3>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 인구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과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효능감 사이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text{-squared}=.03$, $F(9, 6142)=21.13$, $p<.001$).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의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성별($B(S.E.)=-0.01(0.02)$, $p=.41$)과 나이($B(S.E.)=-0.01(0.01)$, $p=.26$)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B(S.E.)=-0.14(0.03)$, $p<.001$), 학교성적이 우수할수록($B(S.E.)=0.05(0.01)$, $p<.001$),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요할수록($B(S.E.)=0.06(0.01)$, $p<.001$), 그리고 아버지가 대학졸업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B(S.E.)=0.05(0.02)$, $p<.05$) 해당 아동의 인권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인권정보 접근성 관련 변수만을 포함하였고 분석결과는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효능감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text{-squared}=0.04$, $F(4, 6147)=59.82$, $p<.001$). 구체적으로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높을수록($B(S.E.)=0.07(0.03)$, $p<.01$), 인권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B(S.E.)=0.11(0.02)$, $p<.001$), 그리고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B(S.E.)=0.03(0.01)$, $p<.001$) 아동과 청소년은 스스로의 인권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 모형 1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인권정보 접근성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효능감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text{-squared}=0.06$, $F(13, 6138)=82.26$, $p<.001$). 인구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높을수록($B(S.E.)=0.07(0.02)$, $p<.02$), 인권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B(S.E.)=0.08(0.02)$, $p<.001$), 그리고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B(S.E.)=0.04(0.01)$, $p<.001$)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1에 비교했을 때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효능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text{-squared change}= 0.03$, $F(4, 6138)=50.38$, $p<.001$). 표준화회귀계수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인권관련 정보접근성 변수들 가운데는 인권 교육의 도움정도($\beta=0.08$)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사회경제적 변수까지 포함하는 경우 가정의 경제적 풍요도($\beta=0.09$)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드러났다.

표 III-3-3 인권효능감 분석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B)	β	B	S.E.(B)	β	B	S.E.(B)	β
성별 ^a									
여성	-0.01	0.02	-0.01				0.00	0.02	0.00
나이	-0.01	0.01	-0.03				0.01	0.01	0.02
학교급 ^b									
고등학교	-0.14 ***	0.03	-0.11				-0.10 **	0.03	-0.08
학교성적	0.05 ***	0.01	0.09				0.04 ***	0.01	0.07
경제적 풍요도	0.06 ***	0.01	0.10				0.05 ***	0.01	0.09
모교육수준 ^c									
대학졸업	0.01	0.02	0.01				0.01	0.02	0.01
부교육수준 ^c									
대학졸업	0.05 *	0.02	0.04				0.04 *	0.02	0.04
지역규모 ^d									
중소도시	-0.01	0.02	-0.01				-0.01	0.02	-0.01
읍면도시	0.02	0.02	0.01				0.03	0.02	0.01
인권정보 접근성				0.07 **	0.03	0.04	0.07 **	0.02	0.04
인권기관 인지도				0.11 ***	0.02	0.10	0.08 ***	0.02	0.07
인권교육 도움정도				0.03 ***	0.01	0.07	0.04 ***	0.01	0.08
R ²	0.03			0.04			0.06		
F(df1, df2)	21.13 (9, 6142) ***			59.82(4, 6147) ***			30.60(13, 6138) ***		

*p<.05 **p<.01 ***p<.001; 이 표에 제시된 변수들 외에 차별피해경험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주: a 비교집단: 남자; b 비교집단: 중학교 c 비교집단: 대학졸업 아남; d 비교집단: 대도시

4) 참여경험 정도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인 참여경험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III-3-4>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 인구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경험 정도 사이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squared=.01, F(9, 6135)=8.34, p<.001).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의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B(S.E.)=0.08(0.02), p<.001), 나이가 어릴수록 (B(S.E.)=-0.05(0.01), p<.001),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B(S.E.)=-0.13(0.04), p<.001), 그리고 학교성적이 우수할수록(B(S.E.)=0.03(0.01), p<.001) 해당 아동의 참여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인권정보 접근성 관련 변수만을 포함하였고 분석결과는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경험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squared=0.07, F(4, 6140)=118.90, p<.001). 구체적으로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높을수록(B(S.E.)=0.26(0.03), p<.001), 인권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B(S.E.)=0.21(0.02), p<.001), 그리고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B(S.E.)=0.03(0.01)$, $p<.001$)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 모형 1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인권정보 접근성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활동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text{-squared}=0.08$, $F(13, 6131)=38.82$, $p<.001$). 인구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높을수록($B(S.E.)=0.25(0.03)$, $p<.001$), 인권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B(S.E.)=0.20(0.02)$, $p<.001$), 그리고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B(S.E.)=0.02(0.01)$, $p<.01$)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활동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1에 비교했을 때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활동 수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text{-squared change}= 0.06$, $F(4, 6131)=106.11$, $p<.001$). 표준화회귀계수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인권관련 정보접근성 변수들 가운데는 인권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beta=0.15$)가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활동 정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변수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표 III-3-4 참여정도 분석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B)	β	B	S.E.(B)	β	B	S.E.(B)	β
성별 ^a									
여성	0.08 ***	0.02	0.05				0.03 ***	0.02	0.02
나이	-0.05 *	0.01	-0.11				-0.03	0.01	-0.08
학교급 ^b									
고등학교	-0.13 **	0.04	-0.09				-0.07	0.04	-0.05
학교성적	0.03 ***	0.01	0.05				0.02 ***	0.01	0.03
경제적 풍요도	0.00	0.01	0.00				0.01	0.01	0.01
모교육수준 ^c									
대학졸업	0.05 *	0.02	0.03				0.02	0.02	0.01
부교육수준 ^c									
대학졸업	0.04	0.02	0.03				0.03	0.02	0.02
지역규모 ^d									
중소도시	0.01	0.02	0.01				0.00	0.02	0.00
읍면도시	0.01 *	0.03	0.01				0.02	0.03	0.01
인권정보 접근성				0.26 **	0.03	0.11	0.25 *	0.03	0.11
인권기관 인지도				0.21 ***	0.02	0.15	0.20 ***	0.02	0.15
인권교육 도움정도				0.03 ***	0.01	0.05	0.02 ***	0.01	0.04
R^2	0.01			0.07			0.08		
$F(df1, df2)$	8.34(9, 6135) ***			118.90(4, 6140) ***			38.82(13, 6131) ***		

* $p<.05$ ** $p<.01$ *** $p<.001$; 이 표에 제시된 변수들 외에 차별피해경험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주: a 비교집단: 남자; b 비교집단: 중학교 c 비교집단: 대학졸업 아님; d 비교집단: 대도시

5) 차별가해 경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관련 행동 양태 중에서 부정적인 행동에 해당하는 차별가해 경험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III-3-5>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 인구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과 아동과 청소년의 차별가해 경험 정도 사이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text{-squared}=.01$, $F(9, 6148)=6.83$, $p<.001$).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의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B(S.E.)=-0.03(0.01)$, $p<.001$), 나이가 많을수록 ($B(S.E.)=0.02(0.00)$, $p<.001$),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B(S.E.)=0.05(0.02)$, $p<.01$),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할수록($B(S.E.)=-0.01(0.00)$, $p<.001$), 그리고 어머니가 대학교육을 받은 경우($B(S.E.)=0.03(0.01)$, $p<.01$) 해당 아동의 차별가해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인권정보 접근성 관련 변수만을 포함하였고 분석결과는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차별가해 경험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text{-squared}=0.08$, $F(4, 6153)=124.88$, $p<.001$). 구체적으로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높을수록($B(S.E.)=0.05(0.01)$, $p<.001$), 그리고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B(S.E.)=-0.01(0.00)$, $p<.01$) 아동과 청소년의 차별가해 경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관련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B(S.E.)=-0.01(0.01)$, $p=.146$).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 모형 1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인권정보 접근성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활동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text{-squared}=0.09$, $F(13, 6144)=45.00$, $p<.001$).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높을수록($B(S.E.)=0.04(0.01)$, $p<.001$), 그리고 인권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B(S.E.)=-0.01(0.00)$, $p<.05$) 아동과 청소년의 차별가해 경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2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권관련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B(S.E.)=-0.01(0.01)$, $p=.244$).

위 결과에서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높을수록 차별가해경험이 높게 나타난 점은 이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단순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차별가해경험에 따른 교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점이 영향을 주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모형 3은 모형 1에 비교했을 때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활동 수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squared change= 0.08, F(4, 6144)=129.62, $p<.001$). 표준화회귀계수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인권관련 정보접근성 변수들 가운데는 인권관련 정보 제공받는 정도($\beta=0.05$)가 아동과 청소년의 차별가해 활동 정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변수까지 포함하는 경우 성별($\beta=-0.09$)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차별가해 경험 분석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B)	β	B	S.E.(B)	β	B	S.E.(B)	β
성별 ^a									
여성	-0.03 ***	0.01	-0.05				-0.05 ***	0.01	-0.09
나이	0.02 ***	0.00	0.11				0.01 **	0.00	0.08
학교급 ^b									
고등학교	0.05 **	0.02	0.09				0.04 **	0.01	0.07
학교성적	0.01 +	0.00	0.02				0.01 *	0.00	0.03
경제적 풍요도	-0.01 ***	0.00	-0.05				-0.01 *	0.00	-0.03
모교육수준 ^c									
대학졸업	0.03 **	0.01	0.05				0.02 *	0.01	0.03
부교육수준 ^c									
대학졸업	-0.01	0.01	-0.01				-0.01	0.01	-0.02
지역규모 ^d									
중소도시	0.00	0.01	0.00				0.00	0.01	-0.01
읍면도시	0.02 +	0.01	0.02				0.02	0.01	0.02
인권정보 접근성				0.05 ***	0.01	0.05	0.04 ***	0.01	0.05
인권기관 인지도				-0.01	0.01	-0.02	-0.01	0.01	-0.02
인권교육 도움정도				-0.01 **	0.00	-0.04	-0.01 *	0.00	-0.03
R ²	0.01			0.08			0.09		
F(df1, df2)	6.83(9, 6148) ***			124.88(4, 6153) ***			45.00(13, 6144) ***		

* $p<.05$ ** $p<.01$ *** $p<.001$; 이 표에 제시된 변수들 외에 차별피해경험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주: a 비교집단: 남자; b 비교집단: 중학교 c 비교집단: 대학졸업 아님; d 비교집단: 대도시

제 IV 장

논의 및 결론

제 IV 장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관련 변수 및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주요한 인구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를 요인으로 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정보접근성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주요 변수들 가운데 일부 초등학교용 설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변수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 기술통계 방법과 더불어, 상관관계 분석, t-test, One-way ANOVA 등 이변수 분석(bi-variate analysis)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 인권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다변수 모형의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정리와 분석에는 Stata MP 15.0을 활용하였다.

2차 자료 분석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에 활용되는 변수의 조작화는 조사대상 자료인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에 포함된 변수로 제한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인권의식 관련 변수로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로부터 아동의 인권관련 전반적 인식,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끼는 정도, 인권효능감 등의 변수와 더불어 아동의 인권의식이 행동으로 외현화되어 나타나는 형태로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그리고 부정적 행동으로서의 차별가해 경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변수로는 같은 자료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관련 제도나 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는 정도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결과와 이에 따른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주요 변수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세 개의 개별 변수들, 즉 아동과 청소년에게 인권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정도, 인권관련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 등은 모두 이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다섯 개의 개별 종속변수들, 즉 인권의식, 인권 존중 정도, 인권효능감, 참여활동 경험, 그리고 차별 가해 경험 등 다양한 변수들과 전체적으로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 상관관계들은 성별, 나이, 학교급,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거주지역 규모 등 인구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관련 결과 변수들과 인권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기존 연구나 이론적 틀 등 관련한 지식기반이 취약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권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여러 개의 변수들 가운데서도 인권교육 도움 정도는 이 연구에 포함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모든 결과 변수와 빠짐없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행동들에 이들이 받은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나, 인권교육 횟수가 아니라 이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도움 정도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이 받은 인권 관련 교육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결과적으로 인권교육의 양적인 부분보다는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지표로써, 향후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질적인 부분의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가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인권교육 도움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이들의 인권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인권교육의 질 관리와 이에 따른 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인권교육 도움 정도와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관련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차별가해 경험을 제외한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 변수는 단순한 인지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각 기관과 제도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까지 묻는 질문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인권의식을 고취하고 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관련 다양한 제도와 기구의 설립 및 운영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인권 관련 제도와 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본 분석 결과, 인권관련 정보접근성 변수들이 인권의식,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정도, 인권효능감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차원의 인권의식(perceptual domain)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참여 경험, 부정적 행동 결과로서 발현되는 차별가해경험 등 인권 관련 행동 영역(actional domain)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권의식 관련 기존 연구는 인권의식을 도덕성을 포함한 태도의 문제로 이해하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인권판단력, 인권감수성, 권리옹호 행동 등 다양한 단계에 걸쳐 구성되는 발전단계적 접근을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김자영, 2012).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이 이들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판단력과 감수성 등 의식 차원뿐만 아니라 행동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인권의식 발달단계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인권 관련 행동으로 진화하는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이들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의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성(citizenhood)을 갖춘 건강한 시민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이 이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향후 연구의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연구의 성과와 함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독자들이 고려해야할 이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탐색적 성격이다. 본 연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축적된 지식기반에 근거한 이론의 확인적 접근(confirmatory approach)라기 보다는 인권관련 정보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탐색적

접근(exploratory approach)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성격으로 인해 기존 이론에 기반하여 정교하게 도출된 가설 검증 방식의 연구라기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변인들을 추출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폭넓게 고찰하는 과정에서 귀납적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검증을 시도하는 탐색적 방식으로 접근하였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 이론에 기반한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향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권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주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향후 이 연구에서 도출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둘째, 앞서 언급한 탐색적 성격의 접근으로 인해 이 연구가 도출해 낸 결과들 중 일부는 충분히 설명되거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의 성격에 가장 근접한 변수라 할 수 있는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정도에 대한 변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행동 관련 결과 변수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의식 변수나 차별가해 경험 변수들과의 관계에서는 직관적인 이해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이들의 인권의식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이들의 차별가해 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분석결과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그 과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 부재한 관계로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이론적 고찰과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2차 자료 분석연구라는 연구방법의 특성상 이 연구에 활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2017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포함된 질문과 변수들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실태조사가 초등학교까지 포함한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인 참여활동이나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등의 변수가 초·중·고등학교 설문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가 분석에서 제외된 점은 명백한 한계로 남는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 중에서도 중학생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결과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형성과 발달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 요인의 중요성을 제기한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기존의 인식차원의 이해와 접근에서 벗어나 인식에 기반한 행동의 수준까지 확장한 연구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행동과 이들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질문이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풍부해지고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6-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자영 (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6(2), 57-83.
- 김자영 (2012).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영희 (2010).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고찰. 인권복지연구, 6, 71-93.
- 박상준, 임태승 (2010). 초등학교의 인권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인권판단력의 발달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3(2), 39-58.
- 양천수, 배병일, 이부하, 오완호, 박정원, 이윤주 (2011).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상우 (2013). 인천지역 중고등학교의 청소년 인권의식에 관한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6(1), 147-169.
- 정해숙, 박성정, 구정화, 최윤정 (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UN (2005). *Revised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2005-2007)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59/Rev.1. New York: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 OHCHR, UNESCO (2006). *Booklet on Plan of Action of the UN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First Phase (2005-2007)*. Geneva.
- Stata Corp. (2017). *Stata MP 15*. College Station, TX.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 17-R05 세제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 · 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 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 · 성윤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정윤미 · 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 · 박상현 · 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고강혁 · 정윤미
-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여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rley, J·Losito, B·Agrust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 시 과 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탁과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욱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하형석·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이유진·정은진·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 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보고 17-R15-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인 쇄 2017년 12월 22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70-7 94330

979-11-5654-146-2 (세트)

연구보고 17-R15-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ISBN 979-11-5654-170-7
ISBN 979-11-5654-146-2 (세트)